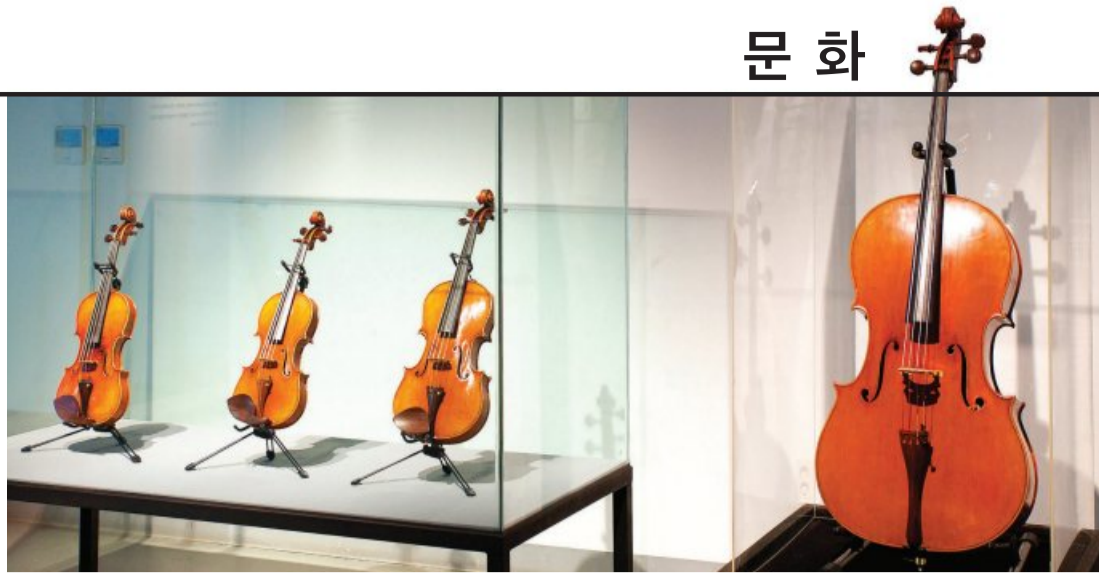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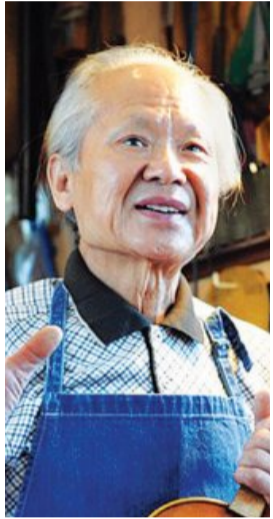
바이올린·첼로·비올라 등 4점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
9일, 타계 10주기 추모음악회
하정웅미술관...기증 악기로 연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명장 고(故) 진창현이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광주호(제1바이올린), 대구호(제2바이올린) 한라호(비올라) 백두호(첼로).

‘천상의 바이올린’ 진창현 선생을 기억합니다

광주호(제1바이올린), 대구호(제2바이올린), 한라호(비올라), 백두호(첼로).
광주시립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2600여 점의 하정웅컬렉션 가운데는 특이하게 현악기 4점이 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명장 하정웅 교포 진창현 선생(1929~2012)이 제작한 악기다. 그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악기를 기증했다. 재일교포인 그는 남북으로 갈린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웠고, 한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의미로 각각의 현악기에 이름을 붙였다.



진창현 선생



랑 현악 사중주단

진창현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 하정웅컬렉션 현악기 기증자 진창현 선생 10주기 추모음악회 ‘천상의 바이올린’을 개최한다. 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랑 현악 사중주단’이 참여한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 바이올린 제작을 공부한 진 선생은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비올라·첼로 제작자 콩쿠르’에서 6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로 떠올랐다. 1984년에는 미국 바이올린 제작자협회로부터 마스터 메이커(Master Maker)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의 삶은 일본 후지 TV에서 ‘해협을 건너는 바이올린’(2004)이라는 드라마로 제작해 방영됐고, 2005년에는 SBS가 제작한 다큐 ‘천상의 바이올린’이 방영됐었다.

진창현과 하정웅의 인연은 지난 1978년 시작됐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버금가는 명기를 만들고 싶다”는 진창현의 다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하정웅은 오랜 세월이 흘러 광주에 작품을 기증하고, 청년작가들을 응원하는 전시회를 준비중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 때 진창현은 “나도 당신과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길에 있는 청년작가들을 키우고 싶다. 나는 경상북도 출신이고, 기소후쿠시마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광주는 나의 제 3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악기를 흔쾌히 기증했다.
그가 처음 기증한 바이올린은 2001년 제1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이 연주된 순간이다.
이후 매년 열리는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에서는 기증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악기는 한번씩 바깥 나들이를 하며 연주자를 만난다. 현악기는 연주를 통해 길을 듣는 게 필요하다. 연주자들은 매년 행사를

앞두고 몇차례 미술관을 방문해 수장고에서 악기를 꺼내 조율하고 연습하며 악기를 길들인다.
7일 연주회를 갖는 랑 현악사중주단은 2009년 창단한 연주단체로 멤버는 신정문(비올라) 단장, 이수연(1바이올린), 김소연(제2바이올린), 윤소희(첼로)씨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진창현 타계 추모음악회를 개최했고 이후 매년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전에서 연주를 해 왔다.
추모 공연 레퍼토리는 모두 사연이 있다. 임흥규 작곡가가 편곡한 ‘울 밑에선 봉선화’는 2012년 추모음악회에서 연주됐던 곡으로 망향의 슬픔을 담고 있다. ‘고추잠자리’는 재일교포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동요로 중간에 ‘아리랑’ 선율을 삽입해 편곡했다.
‘봉선화’는 일본에서 열린 진창현 추모음악회 때 작곡된 바이올린 2중주 곡으로 진창현 선생의 부인 이남이 여사가 랑 현악사중주단에게 악보를 기증했다. 그밖에 미국민요 ‘캔터키 옛집’,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곡 ‘아메리카’를 연주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상파이작 '하노이풍경 III'

‘동행 그리고 공명’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전, 6~21일 은암미술관

22명 작가 참여...8일 개막식

‘한국과 베트남의 현대미술을 만나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6일부터 21일 까지 한해 수교 30주년 기념전 ‘동행 그리고 공명’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 케이팝, 영화 등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어가 베트남 공교육 제1외국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베트남 작가 6명, 한국 작가 16명 등 모두 2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두 나라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폭넓은 문화예술 교류의 방향을 모색해 본 기획이다. 양국 미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에펠 드 인도차이나’ 미술학교로부터 뿌리 내린 베트남 미술계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많은 미술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 베트남 미술의 대표적 장르인 실크화, 목판화, 락카페인팅은 전통의 바탕 아래 현대적 해석을 가미, 그 역사성을 이으며 꾸준히 영역을 지켜가고 있다.
최근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락카화와 평면회화 17점이다. 대표적인 작가 부상 파이는 베트남 화단의 제1세대 서양화가로 베트남 근현대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거장이다. 하노이의 아름다운 풍경 및 소박한 삶을 그린 작품들로 유명하며 사후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해성, 서병욱, 신도원, 이선복, 이정환, 이준립, 이호국, 임종호, 장진수, 조근호, 주미희, 채관병, 채종기, 채종태, 황순철, 한희원 작가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가들이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등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며 광주국제교류센터 베트남 학생들 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음식문화 체험 행사도 갖는다. 또 전시 기간 중에는 베트남 전통 수상인형극 영상도 상영한다.
전시 관람 월~토(오전10시~오후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병천 명인 예술세계

국립남도국악원, 10일 추모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10일 오후 5시 (사)박병천류 진도북춤보존회를 초청해 ‘고 박병천 명인 15주기 추모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박병천 명인의 예술세계를 기억하기 위해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로 스승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마음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총 2부로 나뉜 공연은 먼저 1부 ‘박병천의 삶’에서 박병천 명인이 대중화, 세계화한 ‘경기 충청농악’, ‘진도씻김굿’을 선보인다. 이어 2부 ‘무송제현무’에서는 박병천 명인의 제자들이 ‘교방검무’와 ‘비상’, ‘고깔 소고춤’, ‘살풀이춤’ 등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100여명의 제자들이 동시

제자들이 꾸민다



(사)박병천류 진도북춤보존회 공연 모습

에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 ‘진도북춤’이 주목된다.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대규모 진도 북춤 대장관으로, 웅장함과 화려함을 경험할 수 있다.
(사)박병천류 진도북춤보존회는 진도씻김굿과 진도북춤의 거장 고(故) 박병천 명인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2009년 제자들이 뜻을 모아 구성했고 매년 추모 공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와 국내·외 연수회를 주최해 박병천 명인의 진도북춤을 널리 알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061-540-4042)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ai@kwangju.co.kr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8일 송년문학제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에서 오는 8일 송년문학제를 개최한다.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열리는 이번 송년문학제는 광주시와 동구청,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한다.
홍영숙 운영위원의 사회로 3부에 걸쳐 진행되는 문학제는 시극, 노래, 우리춤,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먼저 1부에서는 황일봉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탁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이 축사를 한다. 유족 대표의 축사, 임택 동구청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된다. 이어 시극 ‘부활의 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근모 수석부이사장의 인사말, 문창반 교수인 이지엽 시인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가수 김원중은 ‘직녀에게’ 외 노래



고문병란 시인

를 선사하고 나르 사공연단은 우리춤을 보여준다. 뒤이어 박예정교향악회는 언제나봄날의 연주, 오현정·최성민이 듀엣으로 ‘꽃씨’를 들려주며 시극 ‘동소산의 머슴새’가 펼쳐진다.
마지막 3부는 교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황일봉 이사장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번 송년문학제를 계기로 문병란 시인의 삶과 시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40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